



EARS Series 3

EAI · CCFR · CIDE · COMEXI

한국 · 미국 · 멕시코 3개국 공동 여론조사 프로젝트

여론과 미국 외교

부시 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

김성한 · 정한울 (공저)



EAI
EAST ASIA INSTITUTE

여론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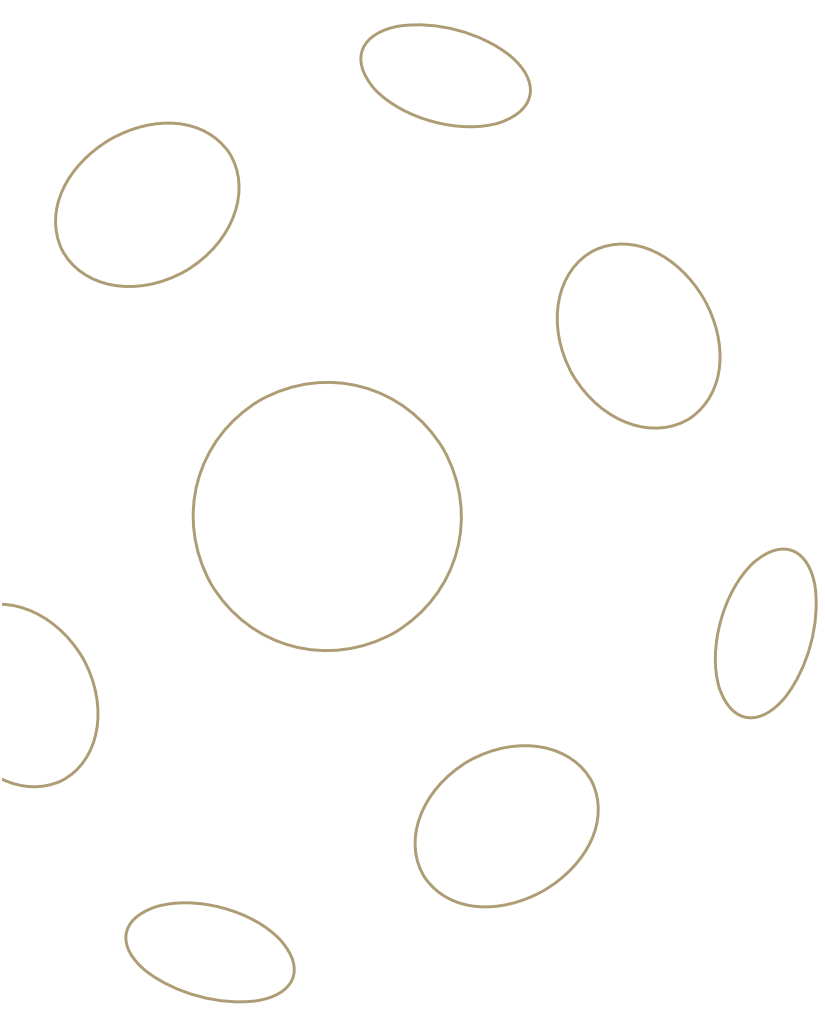
EARS Series3

EAI · CCFR · CIDE · COMEXI
한국 · 미국 · 멕시코 3개국 공동 여론조사 프로젝트

여론과 미국 외교

부시 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

김성한 · 정한울 (공저)





Global Views 2005

“권한과 책임을 그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고 개인의 창의성을 북돋워주며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삼아 모든 차별을 배격하고 기회의 평등성을 보장하는 리버럴리즘이 EAI의 이상이다. EAI는 리버럴리즘이 지배하는 사회만이 디지털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진다고 확신한다.”

EARS Series 3

“여론과 미국외교 : 부시 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

발행인 : 이홍구

편집인 : 주영아

발행처 : EAI

저 자 : 김성한·정한울

디자인 : 김현경

발간일 : 2005년 12월 12일

Copyright © 2005 by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여론과 미국외교 부시 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

보고서를 펴내며 _ 04

요약문 _ 05

여론과 미국외교 : 부시 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 _ 09

1. 부시 재선과 위임논쟁 _ 10
2.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 : 9·11 충격과 신보수주의 _ 13
3. 미 보수여론의 분화 : 중동 민주화 노선을 둘러싼 갈등 _ 17
4. 9·11 충격의 완화 : 반테러전 합의의 악화와 정치적 양극화 _ 21
5. 국제 반미여론의 악화 : 반부시 여론의 확산 _ 27
6. 부시 외교의 딜레마와 선택 _ 31

참고문헌 _ 37

부록 1. 조사방법 개요 _ 42

부록 2. 조사 설문지와 빈도표 _ 44



| 보고서 를 펴 내 며 |

외교가 곧 내정이 되고 내정이 곧 외교가 되는 지구촌 시대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재편에 동참할 것인지, 저항할 것인지가 국내의 주요 이슈가 되는 현실을 통해 세계화라는 문명사적 전환을 실감하게 된다. 이제 국내여론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의 추이를 동시에 살펴 보면서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는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사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여론과 미국외교 : 부시 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은 미국 내외의 여론이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EAI가 2004년 두 차례 실시한 국제여론조사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재선 전후로 발생한 미국내 여론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2기 행정부가 직면한 외교정책의 딜레마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2005년 12월
EAI 원장 김 병 국

| 요약문 |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부시 대통령은 2004년 11월 대선 승리 확정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통해 (나는) 정치적 자산을 획득했고 그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선이 국민적 위임(mandate)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신보수주의자들과 미국 내 보수적 논조의 언론매체들은 곧바로 부시의 이러한 위임발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격차가 크지 않았고 대선을 계기로 미국사회가 공화-민주로 양극화된 점을 고려하면 위임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면서 위임 논쟁이 격화되었다.

사실 9·11테러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현실주의적 입장으로부터 신보수주의 정책으로 급격하게 선회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군사력의 우위와 헤게모니 유지를 중시하면서도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테러리즘을 지지·엄호하는 독재국가들의 정권교체를 피하는 일방주의적 외교를 적극 추진해 가고 있다.

부시의 위임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9·11 테러 이후 국제 정치 질서의 전환을 피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가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의 ‘위임’ 발언은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헤게모니와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는 신보수주의적 외교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시 2기 미국 외교정책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국내외 여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부시 2기 행정부의 ‘위임’ 주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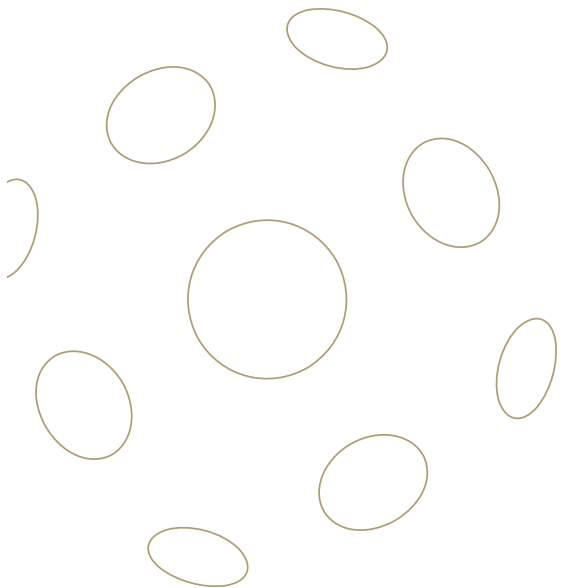
해 이를 위해 (1)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노선과 미국 국민의 대외 인식간의 차이 (2) 반테러·반WMD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지속 여부 (3) 대외인식의 양극화 정도 (4) 국제사회의 대미여론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제약요소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기 부시행정부가 대외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은 미국 국민들 사이에 미국의 대외 개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 9·11 쇼크를 계기로 '본토안보·반테러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지만 이라크전쟁 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 미국내 반테러전에 대한 합의가 악화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이념적·정치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에 대해 공화당 지지자 및 보수층은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 및 진보층은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미국 보수층 내에서 부시행정부의 신보수주의적 노선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중동 민주화 이슈에 대해서는 신보수주의 진영 내에서조차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세계인들은 부시 재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라크 파병을 주도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동맹국들에서조차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부시 외교정책의 딜레마는 중동 민주화라는 핵심 외교정책의 정당성이 국제 여론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중동 및 이슬람 국가들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산되어 왔지만, 이라크 전쟁 이후 이들 국가에서 반미주의가 급격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시 대통령이 ‘위임’을 주장하면서까지 관찰하고 싶어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강한 미국에 대한 꿈을 심각하게 제약할 요인 들임에 틀림없다. 미국의 역량과 부시 행정부의 리더십이 이러한 악조건을 넘어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관찰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최근 미국 안팎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은 4년 임기 동안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힘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우월주의에 근거한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을 고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재 미국 내외에서 제기되는 심각한 도전들과 정면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뿐 아니라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ARS Series 3





여론과 미국 외교

부시 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

1. 부시 재선과 위임논쟁
2.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 : 9·11 충격과 신보수주의
3. 미 보수여론의 분화 : 중동 민주화 노선을 둘러싼 갈등
4. 9·11 충격의 완화 : 반테러전 합의의 약화와 정치적 양극화
5. 국제 반미여론의 악화 : 반부시 여론의 확산
6. 부시 외교의 딜레마와 선택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01

부시 재선과 “위임논쟁(mandate debate)”

부시 대통령은 2004년 11월 대선 승리 확정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선거를 통해 (나는) 정치적 자산(political capital)을 획득했고 그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재선이 국민적 위임(mandate)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자산을 활용하여 2기 행정부가 추진할 핵심 아젠다로서 (1) 사회보장 및 세계개혁 (2) 경제 (3) 교육 (4) 대테러전을 제시하였다.¹⁾ 윌리엄 크리스톨 같은 신보수주의자들과 미국 내 보수적 논조의 언론매체들은 곧바로 부시의 이러한 위임발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²⁾ 이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격차가 크지 않았고 대선을 계기로 미국사회가 공화-민주로 양극화된 점을 고려하면 위임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면서 위임논쟁이 격화되었다.

부시의 위임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는 9·11 테러 이후 국제정치 질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가 2기 행정부에

서도 지속될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의 ‘위임’ 발언은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헤게모니와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는 신보수주의적 외교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시 2기의 외교정책을 전망할 때 미국 내에서조차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공화당과 보수파가 상·하원 및 대법원 등 미국 주요 권력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성공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기존 외교 전략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대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이라크 전후 처리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고 대선을 계기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재정압박 같은 경제적 부담 역시 부시 행정부의 제약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부시행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초당파적 협력을 이끌어 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동의



와 지원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부시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부시재선 이후 부시의 ‘위임’ 발언이 대북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전망이 나왔다.³⁾ 한편에서는 부시 재선 직후 이라크에 대한 군사작전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점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신보수주의적 외교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한다. 반대로 계속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9·11 테러 이후 형성된 미국 내 대테러 안보정책에 대한 합의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부시 대통령이 1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외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부시 취임 후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부시 2기의 외교정책은 부시 1기에 비하여 일방주의적인 경향이 외형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최소한 ‘레토릭’의 차원에서나마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정책만 예로 들더라도 2005년 9월에 열린 4차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부시행정부의 북한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나 외교정책의 수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CVID 원칙(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해체)’을 고수했던 1기 때에 비해 일방주의적 요소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⁴⁾

본 연구는 부시 2기 미국 외교정책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국내외 여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부시 2기 행정부의 ‘위임’ 주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⁵⁾ 여론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방법론적 논의들이 존재해왔고 특히 베트남전 이후 국내여론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⁶⁾ 기존 연구는 여론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며 일관성이 없는 무정형의 태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 혹은 추론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 집중되어 왔다.⁷⁾ 특히 외교안보분야처럼 일반국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경우 일반국민의 여론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역시 중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여론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나 국민여론의 신뢰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보다는 현재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노선과 일반국민 인식간의 질적 차이를 분석하고 그 간격의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미국 여론이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제약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1)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노선과 미국 국민의 대외 인식간의 차이 (2) 반테러·반 WMD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지속 여부 (3) 대외인식의 양극화 정도 (4) 국제사회의 대미여론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제약요소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외교노선과 국민들의 대외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갭이 클수

록, 미국 내 반테러전에 대한 합의가 약화될수록, 국내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부시행정부가 자신의 외교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제약이 심화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반미 여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국제 여론이 미국 대외정책 노선과 거리감이 있는 지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는 동아시아연구원(EAI)이 GlobeScan · 22개국 국제여론조사에 참여하여

진행한 2004년 12월 여론조사 데이터와 동아시아연구원(EAI) · 시카고외교협회(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CFR) · 멕시코의 경제연구교육센터(Centro de Investigacion y Docencia Economicas: CIDE) · 멕시코외교협회 (Consejo Mexican de Asuntos Internacionales: COMEXI)가 2004년 7월에 실시한 한국 · 미국 · 멕시코 3개국 대외인식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

02

부시행정부의 외교노선 : 9·11 충격과 신보수주의

부시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9·11 테러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부터 신보수주의 정책으로 급격하게 선회하게 만들었다.⁸⁾ 미국의 외교노선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분류법이 존재하지만 분류의 가장 큰 핵심 축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고립주의(isolationism)의 대립이다(표1 참조). 탈냉전 이후 이미 미국의 국제 질서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미국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경향 뿐 아니라 민주당과 리버럴 진영 역시 인권과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제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관여 및 확장(engagement and enlargement)’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 리버럴 진영이 보수파에 비해 국제문제 개입에 소극적이던 전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와 적극적 개입을 추구하는 국제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⁹⁾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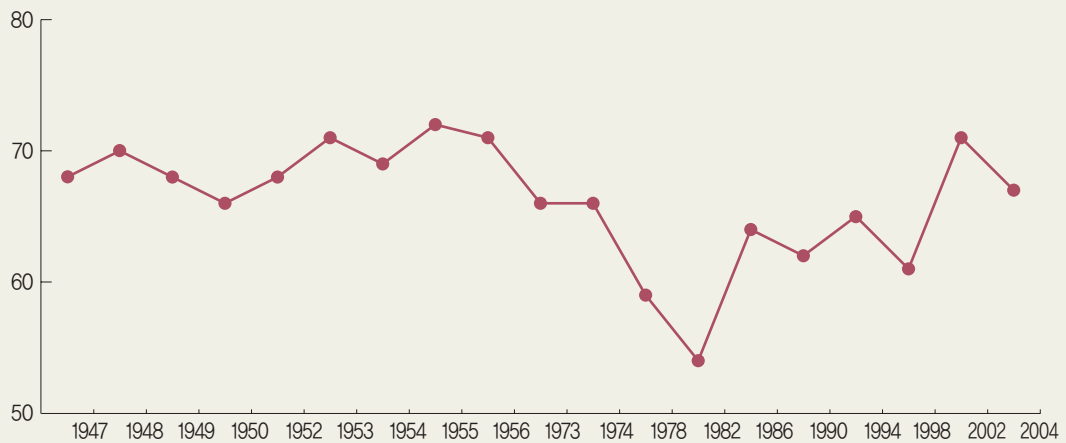
구나 9·11 이후 테러라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 눈앞에서 현실화되고 미 본토가 공격받았다는 충격으로 인해 대외 개입을 꺼리는 고립주의의 경향은 많이 약화되었다. [그림1]을 보면 미국 국민들의 국제주의에 대한 지지 경향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여론을 살펴보면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다 냉전의 종식 이후에는 긍정적인 여론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특히 9·11 테러 직후인 2002년 조사결과를 보면 71%가 ‘국제적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체제가 성립되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치이다.

9·11 테러는 미국 외교노선의 국제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대외전략에 있어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담론의 틀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신보수주의의 일방주의적인 군사패권정

[표 1] 미국 외교정책 이념 분류¹⁰⁾

| 분류틀 | 고립주의 | 국제주의 | | |
|--------------|------------------------------------|--|---|--|
| | |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 현실주의 | 신보수주의 |
| 탈냉전의 국제질서 | 미국주도의 국제질서 부정 |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제 | 미국 중심의 세력균형 | 단극체제 (Unipolarity) |
| 민주적 가치와 대외정책 | 가치를 배제한 최소한의 자기방어 | 국제협력을 통한 자유주의의 확산 | 가치를 배제한 이익(interest)의 극대화 | 민주적 가치의 공세적 확산 |
| 실현 방법 | 최소한의 국방력 강화 국방예산 축소 국내 경제 우선 | 1) 글로벌거버넌스추구 2) 법적·제도적 협력 3) 미국주도 다자협력 | 1) 세력균형 2) 군사력 우위 3) 상황에 따라 일방주의 추진 | 1) 민주주의 확산 2)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 3) 일방주의 |
| 군사적 대외개입 | 최소화 | 인도적 개입 | 억지(deterrence)와 균형을 위한 전략적 개입 | 신국제주의적 개입 (민주적 가치실현을 위한 개입 정당화) |
| 대표자 | 패트릭 뷰캐넌 | 빌 클린턴 앨 고어 존 케리 | 헨리 키신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 딕 체니 폴 월포워츠 윌리엄 크리스톨 |

[그림 1] 미국 국민들의 국제주의에 대한 지지(%)



* "미국이 국제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긍정적'으 대답한 응답비율
 ** 출처 : EAI · CCFR, World Views 2004, U.S. Topline Report (Q200) p79를 그래프로 재구성

책이 미국 외교안보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¹¹⁾ 백악관이 2002년 9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는 방어와 반격에 초점을 둔 외교전략 대신 공격과 예방을 우선시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안보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¹²⁾ 그 핵심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고서는 팍스 아메리카체제의 구축을 미국 외교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공고히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군사력의 우위와 헤게모니 유지를 중시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확산’을 외교안보전략의 목표이자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현실주의 전략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 테러리즘을 지지·엄호하는 독재국가들의 정권교체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 성향을 감추지 않는다.¹³⁾ 특히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판단에 의해 정권교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선제 공격론’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라크 전쟁이다. 현재 네오콘이 주장하는 민주적 가치의 공세적 확산 전략은 중동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되고 있다.¹⁴⁾

둘째, 보고서는 적대적인 ‘국가’에 의해 야기되는 전통적 안보위협 대신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환경 파괴 등 비대칭적 안보위협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9·11은 미국으로 하여금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위협들 중에서 테러리즘과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이에 따라 부시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저지하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미국과 세계의 안보를 실현하는 데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치러진 두 차례의 전쟁 모두 테러의 온상을 제거함과 동시에 테러세력에게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 저지와 테러 억지가 미 정부의 대외정책에서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셋째, 선제공격을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과거 냉전시기의 현실주의는 상대편으로부터 가시적인 군사위협이 등장한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고려했다. 그러나 신보수주의는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선제공격이라는 군사적 수단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이다.¹⁵⁾ 심지어 2002년 3월 공개된 핵테세 보고서는 상대방이 비핵국가라 하더라도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핵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신보수주의의 일방주의적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¹⁶⁾

2004년 대선정책 및 2005년 2기 정부의 정책 구상을 담고 있는 취임연설과 국정연설 등을 보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기는 하되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여전히 신보수주의의 안보철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적 외교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시행정부에게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 9·11테러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신보수주의 정책으로 급격하게 선화하게 만들었다.
 - 2기 부시 행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하되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여전히 신보수주의의 안보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

03

미 보수여론의 분화 : 중동 민주화 노선을 둘러싼 갈등

(1) 고립주의 경향의 강화와 보수층의 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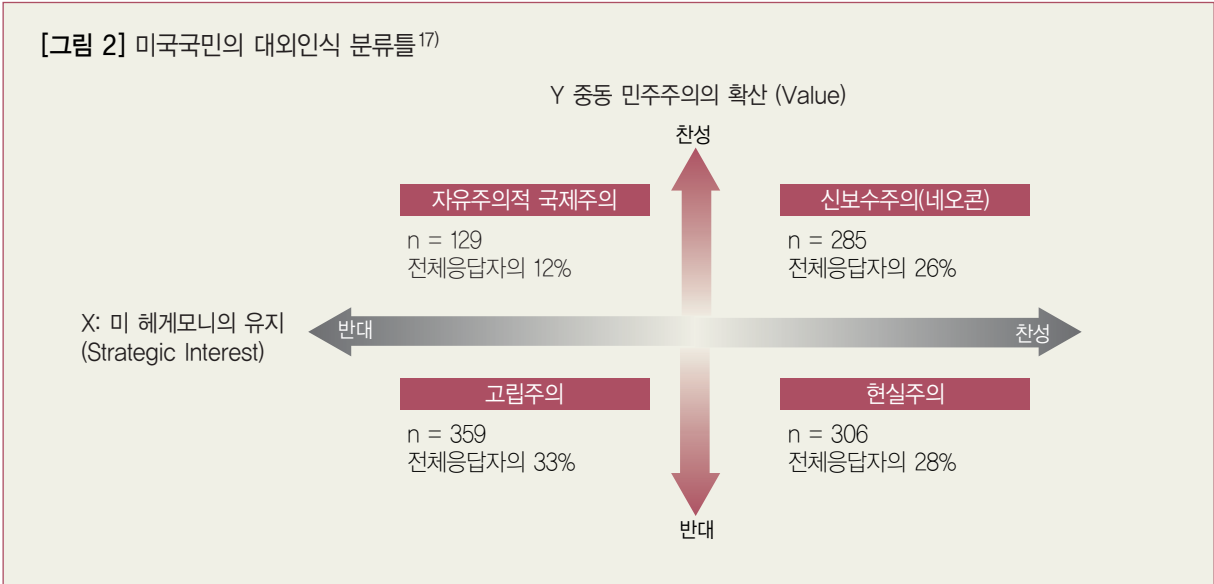
2004년 대선에서 안보이슈에 대한 우위를 점하면서 케리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반테러전의 승리를 위해 미국 국민들의 위임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미국민의 대외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러한 자신감은 그 근거가 취약하다. 2기를 시작한 부시행정부가 대외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요인은 미국국민들의 대외인식이 부시행정부의 신보수주의적 노선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보수적 응답층이 중동 민주화 이슈를 기준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는 미국 국민들의 대외정책에 대한 인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미국외교 정책의 전략적 목표 및 외교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2×2 분석틀을 구성했다. 각 차원별로 (1) 세계 헤게모니체제

유지에 대한 동의 여부 (2) 중동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지지 여부를 지표로 삼아 두 문항을 교차하여 네 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중동 민주화 이슈를 인식분류 축으로 삼은 것은 네오콘의 중동 민주화 전략이야말로 부시 외교정책이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들과 달라진 가장 차별화된 요소이며, 신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보수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 간의 논쟁에서 핵심 쟁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류틀을 통해 (1)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에 찬성하고 중동에 민주주의를 강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2) 중동 민주화라는 민주적 가치에는 동의하면서 미 헤게모니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3) 미 헤게모니 체제 유지에는 찬성하지만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현실주의(realist) (4) 두 이슈에 공히 반대하는 입장을

[그림 2] 미국국민의 대외인식 분류틀¹⁷⁾



고립주의(isolationist)로 정의하고 여론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시행정부의 외교전략노선이라 할 수 있는 신보수주의적 입장을 지지하는 층은 전체 응답자의 26%에 불과한 반면 이와 상반된 고립주의적 성향의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종전 선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탄테러와 날로 증가하는 미군 사망자로 인해 전후 이라크의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전쟁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데다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반미여론이 고조되면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발견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한다는 전략적 목표에 대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54% : 신보수주의자 26% + 현실주의자 28%)이 지지를 하고 있지만, 중동 민주화 이슈에 대해서는 38%만이 지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미국의 헤게모니 추구를 지지하는 보수층 내에서조차 중동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반반(26%: 28%)으로 갈라지고 있다. 현실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헤게모니 유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잠재적인 지지층이다. 이 지지층 내에서 부시 행정부의 중동 민주화 정책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최근 부시행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학계나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 민주화 노선을 둘러싸고 현실주의 진영과 신보수주의 진영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¹⁸⁾ 노우(Henry R. Nau) 등 일련의 보수적 학자군조차 미국 보수파 내에서 신보수주의·현실주의·민족주의 분파의 분화 및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¹⁹⁾

하지만 부시는 대선 직전인 2004년 11월 2일에 “새 임기동안 나는 동맹과 다른 우방국들과 공조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일방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는 “중동 민주화에 대한 회의주의는 근본적인 평화실현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집권 2기 취임사에서는 ‘자유(freedom, liberty)’라는 단어를 무려 49회나 사용함으로써 중동의 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에 변화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했다.²⁰⁾ 결국 전략적 개입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진영과 민주주의의 공세적 확산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 진영 간의 갈등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일단 신보수주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중동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중동의 민주화를 위해 더 큰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지지도 만 보더라도 2003년 11월 조사시 41%의 지지를 받았지만 2004년 7월 조사에서는 35%로 하락하는 등 중동 민주화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다.²¹⁾

(2) 신보수주의의 균열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보수층 내에서 현실주의와 신보수주의 사이에 분열이 더해져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보수주의 진영 내에서조차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균열의 조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보수주의 정치경제학자로 분류되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존스홉

킨스대 교수와 신보수주의 언론인으로 간주되는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테머(Charles Krauthammer)간의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크라우테머는 냉전종식 직후인 1990년 겨울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에 “단극적 순간”(Unipolar Moment)이라는 글을 기고하여 냉전종식으로 인해 미소양극체제가 소멸하고 미국중심의 단극체제의 도래가 도래할 것임을 예견한 바 있다.²²⁾ 그로부터 12년 후인 2002년 겨울 크라우테머는 외교전문지 *The National Interest*에서 그의 논지를 확대하여 “단극적 순간이 바야흐로 단극적 시대(unipolar era)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하였다.²³⁾ 그리고는 9·11 이후 단극적 질서를 통한 국제체제의 안정, 즉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의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중동에서 민주주의 확산의 필요성에 동조하여 신보수주의 정치경제학자로 간주되었던 후쿠야마는 2004년 여름 외교전문지 *The National Interest*에서 신보수주의자의 이라크 전쟁 옹호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론 논쟁을 촉발시켰다.²⁴⁾ 그는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법치주의를 흔들었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안겨주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²⁵⁾

후쿠야마는 “크라우테머는 자유에 대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실존적인 적대세력(existential enemy)이 존재하는 곳, 즉 전략적 필요성(strategic necessity)이 존재하는 곳에만 피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중략)... 과연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이

범세계적 차원에서 우리의 자유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신보수주의가 ‘과도한 현실주의’(excessive realism)에 빠져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또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가능성(possibility)과 (실제로 꽃피우는) 유망성(likelihood)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문화적 요인을 완전히 무시한 채 민주주의가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은 ‘과도한 이상주의’(excessive idealism)에 빠져있다”고 혹평하였다.

이에 대해 크라우테머는 2004년 가을 *The National Interest* 기고를 통해²⁶⁾ “9·11은 우리들에게 역사가 아직 종언을 고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으며, 과거보다 훨씬 더 광적이고 치명적이며 억지하기 힘든 적들과 대면하는 실존적 투쟁의 단계로 접어들게 만들었다”고 강변하였다. 동시에 그는 “국제관계의 역학구도를 무시하고 국가이익 개념을 등한시하는 순진한 이상주의나 권력관계를 뛰어 넘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순수한 현실주의 둘 다 모두 적절치 않다”고 단언했다.

그리고는 “무조건적인 개입보다는 초점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자유가 위협받는 곳에 다 개입하

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꼭 필요한 곳(자유를 심었을 때 실존적 적대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전략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곳, 예: 이라크)에 자유가 위협받고 있을 때 개입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후쿠야마 교수의 ‘과도한 현실주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다.²⁷⁾

우리는 후쿠야마 교수와 크라우테머 칼럼니스트간의 논쟁을 보면서 신보수주의 진영, 더 나아가 신보수주의 외교이념의 균열조짐을 감지할 수 있다.²⁸⁾ 이제 신보수주의자들은 신보수주의 외교이념 자체의 변화를 피할지 아니면 콘텐츠는 그대로 둔 채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동맹국들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스타일상의 변화를 도모할지를 놓고 중대한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떻게 결론이 나건 신보수주의 진영이 분열한다는 것은 가뜰이나 국내외적으로 강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시 외교정책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부시행정부가 이라크 전쟁 초기에 보여주었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 2기 부시 행정부가 대외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은 미국 국민들 사이에 미국의 해외 개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보수층 내에서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적 노선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중동 민주화 이슈에 대해서는 신보수주의 진영 내에서조차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04

9·11 충격의 완화 : 반(反)테러전 합의 약화와 정치적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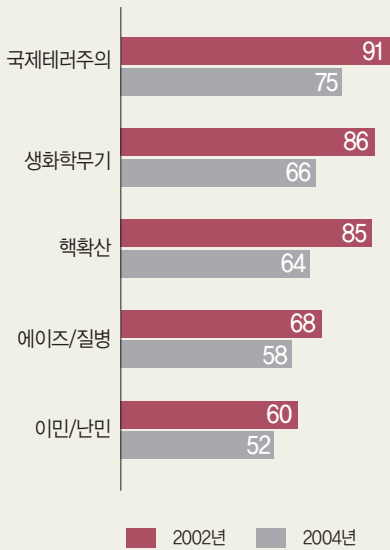
(1) 사회적 합의의 약화: 결집효과와 이완

2004년에 들어와 부시 행정부는 년 초의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스페인 열차 폭탄테러사건, 5월의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한 민간인 납치·살해사건 등으로 지속적인 악재에 시달렸다. 더구나 이라크의 국가재건사업이 큰 난항에 부딪치면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내외의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적으로는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였고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은 가속화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스페인·태국·필리핀 등 이라크 파병국들이 하나 둘씩 철군결정을 내리면서 이라크 전쟁은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²⁹⁾ 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보장 문제와 같은 국내이슈 등에 대해서 민주당 케리 후보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처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9·11 쇼크를 계기로 ‘본토안보·반테러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소위 ‘국가 위기상황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른바 결집효과(the effect of rally around the flag)의 덕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³⁰⁾ 특히 부시 대통령의 경우 역대 어느 후보보다 결집효과를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누렸던 것으로 평가된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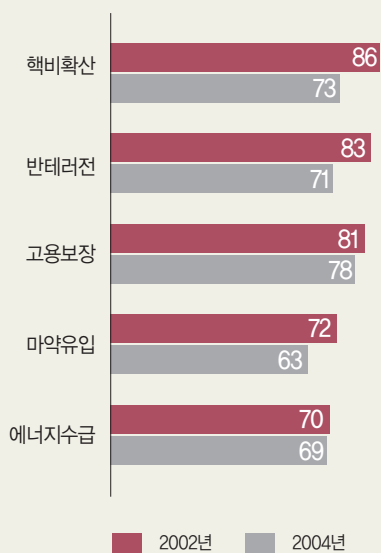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면 테러리즘과 WMD 확산에 대한 공통의 위협인식이 아직 존재하고 그것을 억지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라는 합의가 여전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미국 국민들이 이제는 9·11 직후의 쇼크로부터 차츰 벗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에서 보면 9·11 직후에는 국제테러주의, 생화학무기 및 핵 확산에 대해 각각 91%, 86%, 85%의 압도적 다수가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그림 3] 미국인의 위협인식 변화(%) :
“심각한 위협요인” (상위 5위만 추출)



* 심각한 위협 "critical threat"으로 인식한 비율
** 자료 : CCFR Top Line Report(2004)의 Q3.

[그림 4] 미국 핵심 대외정책 순위(%) :
“매우 중요하다” (상위 5위만 추출)



* 매우 중요 "very important"로 응답한 비율
** 자료 : CCFR Top Line Report(2004)의 Q4.

2004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그 순위는 유지되고 여전히 60~70% 대의 수준이 유지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이슈들, 즉 에이즈/질병이나 이민/난민 유입문제에 비해 외교안보 이슈들에 대한 위협인식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문항 분석에서 나타난다. [그림4]를 보면 2002년 조사 결과 핵 확산 저지와 반테러전이 각각 86%, 83%로 1순위, 2순위로 나타났다지만 2004년 조사에서는 미국 노동자의 고용보장(78%)에 이어 각각 2순위, 3순위로 밀려났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69%로 그 뒤를 이어 최근 경제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기존의 반테러·반WMD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도전하고 있는 양상인 셈이다. 특히 핵확산 저지를 중요 대외정책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13%p 감소하고 반테러전의 경우 12%p 이상 감소한 것은 점차 9·11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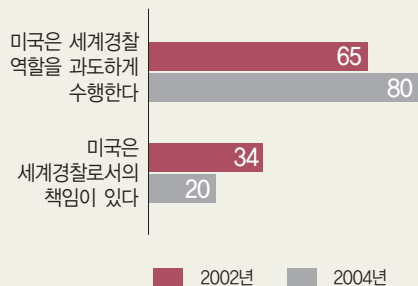
미국이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여론의 변화에서도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그림5]에서 보면 2004년 조사 결과 “미국이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과 20%만이 동의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이 ‘과도하게’ 세계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려 80%가 동의하고 있다. 이는 2002년 조사와 비교해볼 때 각각 전자에 대해서는 14%p (34%→20%)가 하락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15%p (65%→80%)가 상승한 결과로서 미국의 개입주의적인 외교노선에 대한 비판적 태도

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6]에서 보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제시한 “미국의 최초 정책구상과 UN의 결정이 상충하더라도 UN의 테두리 내에서 미국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무려 66%가 동의함으로써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가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7]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에 대한 대답을 보아도 미국인들의 인식은 현 부시 정부의 태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미국이 미래의 시점에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부에 대한 전복을 UN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신보수주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 11%만이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로부터 위협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선제공격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58%에 달했다. 결론적으로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반테러전·WMD 비확산’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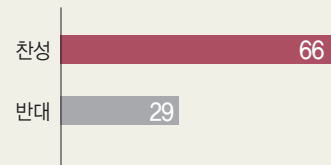
[그림 5] 미국의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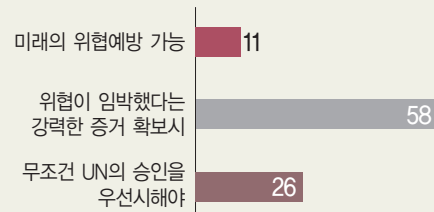
* 모름/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 자료 : CCFR Top Line Report(2004)의 Q35, Q40.

[그림 6] UN과 공동 정책결정(%)



[그림 7] UN의 승인 없이 테러국가 공격 조건(%)



* 모름/ 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 자료 : EAI·CCFR(2004)의 Q90, Q53b

되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방식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강화되는 추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2)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사회적 합의의 약화는 미국내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귀결된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외인식이 어떻게 양극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네 가지 사안인 (1) 군사적 우위의 추구 (2) 중동 민주화 달성 (3) UN과의 공동협력의 필요성 (4) 대테러전 방법 등에 대한 여론 양극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³²⁾ 양극화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1) 성

별 (2) 소득 (3) 세대 (4) 교육수준 (5) 정당 일치감 (6) 주관적 자기이념 평가를 고려하여 이 요인들이 대외인식 격차 및 양극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2]의 상관계수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대외정책 목표 중 '중동 민주화'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질문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당·이념·교육수준별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정책목표로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 보수이며 공화당을 지지하고 저학력일수록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세대별로 보면, 나이든 세대일수록 군사주의적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성별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외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교육수준·정당선호·이념 성향에 따라 선호의 차이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당을 선호할수록, 진보적(리버럴) 입장일수록 대외정책 결정에서 UN과의 공동협의를 중요시한다. 또한 이들은 대 테러전 수행방식으로서 군사력 보다는 외교·경제적 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로서 군사적 헤게모니 유지를 채택할 것인지, 그리고 외교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일방주의를 택할지 아니면 다자협력주의를 택할지에 대한 입장 차이는 이념적·정치적 균열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군사적 헤게모니를 선호하는 응답층은 일방주의적 외교를 선호하고, 반

[표 2] 주요쟁점과 사회경제적·정치적 변수간의 상관계수표³³⁾

| 분류 |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 | | 대외정책 추진 방식 | |
|------------------|---------------|---------------|---------------|----------------|
| | 군사적 우위 (Q4_5) | 중동 민주화 (Q230) | UN 공동결정 (Q90) | 대테러전 수단 (Q199) |
| 성별(1= 남, 2= 여) | -0.015 | 0.007 | -0.006 | -0.047 |
| 소득(저< 중 < 고소득) | -0.090** | -0.029 | -0.039 | -0.047 |
| 세대(20대~50대 이상) | 0.116** | 0.013 | 0.033 | 0.068 * |
| 교육(저 < 중 < 고학력) | -0.176** | -0.020 | -0.119** | -0.125 * |
| 정당(민주 < 중도 < 공화) | 0.188** | 0.090** | 0.233** | 0.224 * |
| 이념(진보 < 중도 < 보수) | 0.134** | 0.045 | 0.224** | 0.208 * |

Note: 수치는 pearson 상관계수(-1~1)를 의미. +는 정의 관계, -는 부의 관계를 의미하고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변수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유의도 p<0.05

** 유의도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무응답/모름 : 결측 처리

대로 군사적 헤게모니에 반대하는 사람은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자가 공화당 지지층이면서 보수층일 가능성이 높다면 후자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성향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³⁴⁾

중동 민주화 목표의 경우 기존의 사회경제적 변수나 정치적 변수들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2]와 [표3]을 살펴보면, 첫째, 학력별로는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일체감이나 자기이념별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층일수록 좀 더 중동 민주화에 반대하는 경향이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있다. 특히 정당일체감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상관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아(0.090)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미약한 수준에 불과

하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되었다. 또한 공화당 지지층이나 보수층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중동 민주화 이슈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 집단들 내에서도 과반수 이상(공화당 지지층 54%, 보수층 58%)이 중동 민주화 이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2]의 인식 분류들과 연관시켜 해석하면 중동 민주화 이슈는 기존의 이념적 균열선, 즉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등의 태도와 중첩되기보다 대외 인식에 있어 새로운 균열 축으로 교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중동 민주화 이슈는 보수 층 내의 균열을 가져오는 핵심 요인인 셈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념적, 정치적 논쟁의 쟁점

[표 3] 주요 쟁점과 교육수준·정당일체감·자기이념간 교차분석표

| 교차분석표 | | 중동 민주화 목표(Q230) | | | 대 테러전 수행방식(Q199) | | | |
|-------|------|-----------------|-------------|-------------|------------------|-----------------|-------------|-------------|
| | | 찬성 (39%) | 반대 (61%) | 카이제곱 통계량 | 외교/경제 (48%) | 양 수단 병행(28%) | 군사 (24%) | 카이제곱 통계량 |
| 교육수준 | 저학력 | 39 | 61 | 0.618 | 39 | 30 | 31 | 18.924** |
| | 중등학력 | 40 | 60 | df=2 | 43 | 28 | 29 | df=4 |
| | 고학력 | 37 | 63 | p=0.734 | 53 | 27 | 20 | p=0.001 |
| 정당일체감 | 민주당 | 36 | 64 | 14.068** | 61 | 20 | 19 | 88.827** |
| | 무당파 | 33 | 67 | df=2 | 44 | 28 | 28 | df=4 |
| | 공화당 | 47 | 54 | p=0.001 | 29 | 41 | 30 | p=0.001 |
| 자기이념 | 진보 | 36 | 64 | 2.284 | 66 | 18 | 16 | 69.119** |
| | 중도 | 38 | 62 | df=2 | 45 | 29 | 26 | df=4 |
| | 보수 | 42 | 58 | p=0.319 | 35 | 36 | 29 | p=0.000 |

* 자료 : EAI · CCFR(2004)

** p(0.001, df: 자유도(degree of freedom), p는 유의확률

필호안의 수치는 전체 평균 응답비율(%)

무응답/모름: 결측 처리

이었던 외교정책의 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즉 군사적 수단과 외교·경제적 수단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교육수준별, 정당선호, 이념성향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외교·경제 수단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 61%, 진보층의 66%가 선호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과 보수층은 평균(48%)에 많이 못 미치는 29%, 35%만이 선호하였다.

결론적으로 2004년 조사시점의 여론을 살펴보면 테러리즘과 핵을 포함한 WMD 반확산 정책에 대해 미국 국민들의 다수가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현재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외교전략 논쟁의 쟁점이었던 일방

주의 대 다자주의, 군사주의 대 외교우선 노선, 군사적 패권 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노선 등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사회적 균열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시사점은 이라크 전쟁 이후 부시 외교정책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중동 민주화 정책이 대체로 전 집단들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보수층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부시 2기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적 외교전략 추구과정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 9·11 쇼크를 계기로 '본토안보·반테러전'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지만 이라크전쟁 이후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 미국내 반테러 합의가 약화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이념적·정치적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동 민주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전 계층에 고르게 확산되어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적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있다.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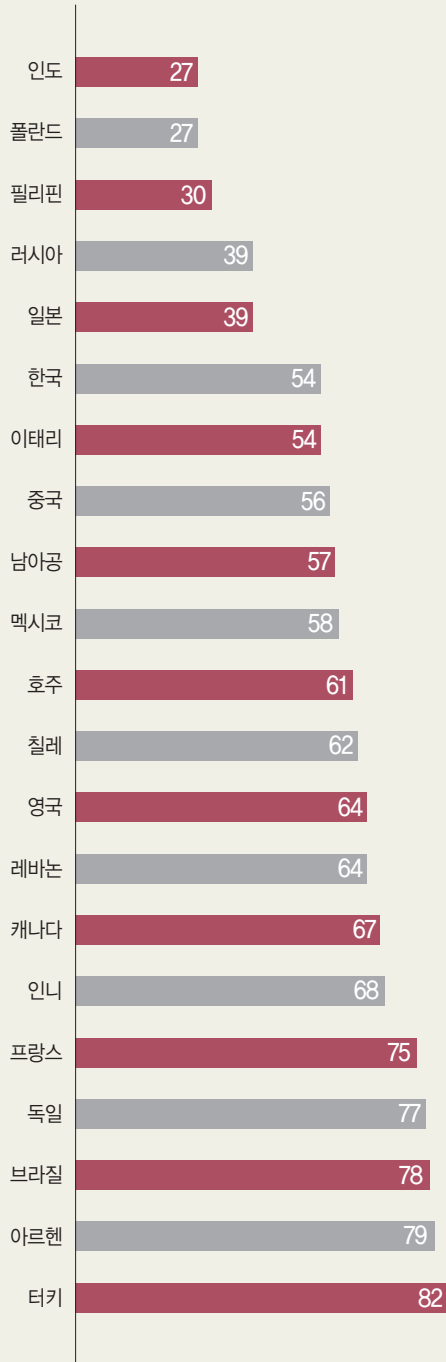
국제 반미여론의 악화 : 반부시 여론의 확산

세계여론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가 민주정부 형태를 띠고 있는 이상 세계 각국은 자국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지난 2004년 스페인에서 발생한 열차테러 사건과 이라크에서 연이어 발생한 외국인 납치, 살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인 테러의 대상이 된 국가들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들이었다. 한국이나 일본, 호주처럼 인질을 담보로 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파병철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국가도 있었지만 필리핀처럼 국내여론에 밀려 인질의 목숨과 파병철회를 맞바꾼 사례도 있었다.³⁶⁾ 둘째, 세계여론이 미국의 국민여론 및 정책결정 엘리트 집단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국제적 협력과 동맹의 협조를 중시하는 집단은 해외 여론의 향방 특히 부시 행정부 집권 이후 고양된 반미주의(anti-Americanism)를 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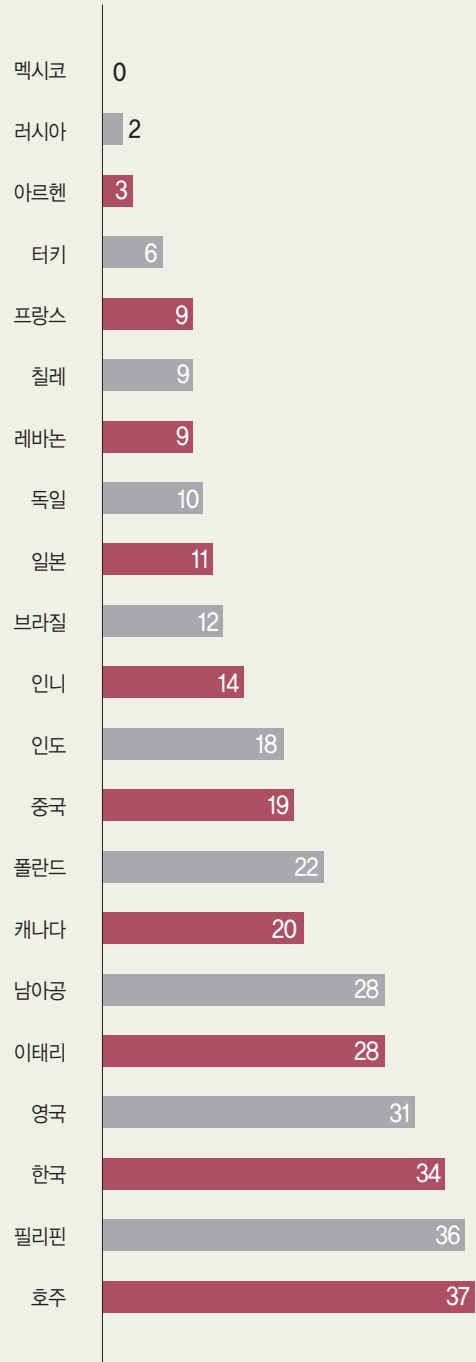
외교 전략이 실패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³⁷⁾ 다시 말해 해외여론이 국내 반대파들의 비판논리를 강화시킴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대국민 설득 논리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EAI·GlobeScan 23개국 여론조사 결과는 부시 재선에 대한 세계인들의 대미여론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우선 [그림8]은 '부시 재선이 세계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인도, 폴란드, 필리핀, 러시아, 일본 등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부시재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과반수에 달하고 있다.³⁸⁾ 이라크 전에 동맹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미군의 군사 활동에 병참지원이나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 영국, 터키, 호주, 한국 등에서조차 부시의 재선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많다는 점은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다. 가뜰이나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반미감정은 미국 정부의

[그림 8] 부시 재선이 세계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³⁹⁾



[그림 9] 부시 재선 이후 이라크 파병에 대한 22 개국 여론(%): “지지”⁴⁰⁾



* 자료 : EAI · GlobeScan(2004)
 ** 조사대상 23개국 중 미국의 응답은 제외함.

* 자료 : EAI · GlobeScan(2004)
 ** 조사대상 23개국 중 미국의 응답은 제외함.



활동반경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을 보면 부시 재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반미감정을 더욱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그림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대상국 중 단 한 개 나라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수를 넘지 못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은 평균 70%를 상회하고 있다.⁴¹⁾ 특히 이미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크다. 한국 34%, 영국 31%, 폴란드 22%, 일본 11%만이 이라크 파병에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이라크 전후 복구과정에서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미국으로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국제여론은 부시행정부가 무엇보다 야심차게 밀고 나가고 있는 중동 민주화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로 작용한다. 2000년대 들어와 중동국가나 이슬람 국가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개선되어오고 있었는데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이들 국가에서 반미감정이 다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에는 모로코, 레바논, 인도네시아, 터키, 파키스탄, 요르단 등 중동이나 기타 이슬람 국가들에서 대미인식이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2004년에는 그 우호도가 10~20% 대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부시 행정부가 내세우는 중동 민주화 정책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표 4] 미국에 대한 이미지 : “우호적” (%)⁴²⁾

| 국가명 | 1999/2000 | 2002 | 2003. 03 | 2004. 06 |
|-------|-----------|------|----------|----------|
| 영국 | 83 | 75 | 48 | 70 |
| 캐나다 | 71 | 72 | - | 63 |
| 한국 | 58 | 53 | - | 46 |
| 독일 | 78 | 61 | 25 | 45 |
| 프랑스 | 62 | 63 | 31 | 43 |
| 모로코 | 77 | - | - | 27 |
| 레바논 | - | 35 | - | 27 |
| 인도네시아 | 75 | 61 | - | 15 |
| 터키 | 52 | 30 | 12 | 15 |
| 파키스탄 | 23 | 10 | - | 13 |
| 요르단 | - | 25 | - | 1 |
| 팔레스타인 | 14 | - | - | 1 |
| 이스라엘 | - | - | - | 79 |

*자료 : PEW Research(2003)

-
- 세계인들은 부시 재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라크 파병을 주도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동맹국들에서조차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 부시 외교정책의 딜레마는 중동 민주화라는 외교정책 목표의 정당성이 국제여론에 의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중동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산되어 왔지만, 이라크 전쟁 이후 이 국가들에서 반미여론이 급격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

06

부시외교의 딜레마와 선택

부시 대통령은 2004년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후 향후 4년간 자신의 정책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국제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는 현실적인 근거를 갖는 주장이기보다 부시 대통령의 의지와 바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 결과는 우선 미국 국민들의 인식분화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동 민주화와 일방주의를 고수하는 부시의 신보수주의적 외교정책이 주로 보수층 내에서 현실주의 대신 보수주의간의 분화로 이어지면서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기반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2001년 9·11 쇼크로 비롯된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2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그 정도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방주의적인 군사적 개입의 형식에 대한 거부

감이 미국사회 내에 팽배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2004년 미 대선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보수주의적 외교노선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당지지·이념성향·교육수준별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점 역시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부시 재선 직후 실시한 글로브스캔·EAI 여론조사 결과는 부시의 재선으로 미국에 대한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시 대통령이 '위임'을 주장하면서까지 관철하고 싶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강한 미국에 대한 꿈을 심각하게 제약할 요인들임에 틀림없다. 미국의 역량과 부시 행정부의 리더십이 이러한 약조건을 넘어 자신의 전략적 목표를 관철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최근 미국 안팎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남은 4년 임기 동안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힘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우월주의에 근거한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을 고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재 미국

내외에서 제기되는 심각한 도전들과 정면 대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 뿐 아니라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끝)

1)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11/20041104-5.html>

2) William Kristol, "Misunderestimated," *Weekly Standards*, 2004년 11월 15일자. *The Wall Street Journal* 사설, "The Bush Mandate," *The Wall Street Journal*, 2004년 11월 4일자. 위임발언에 반대하는 요지는 Joseph S. Nye Jr. "Bush Won Less of a Mandate for Change Than You Might Think," *Daily Star*, 2004년 12월 6일; David Boaz, "No Mandate: No Kerry Election," *Fox News*, 2004년 11월 3일자 등을 참조할 것.

3) 국내에는 AEI(미국기업연구소)의 에버슈타트(Nick Eberstadt)와 CSIS의 에드워드 러트윅(Edward N. Luttwak)의 상반된 전망이 소개되었다. 러트윅가 집권에 성공한 2기 대통령의 사례분석을 통해 부시 2기 행정부는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에버슈타트의 경우 재선의 탄력을 활용하여 북핵 문제 등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합뉴스』, 2004년 11월 15일자.

4) 신보수주의적 입장의 논객들은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에버슈타트는 9·19 공동선언을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에게 실패를 안겨주었다'고 평가절하했고, 존 트러직 헤리티지 연구원은 '4차 6자회담 결과를 보더라도 낙관론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미 강경파, 대북압박 세몰이," 『세계일보』, 2005년 9월 30일자.

5) 사실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치는 독립변수의 설정과 그 결정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들이 존재한다. 로즈노(James N. Rosenau)는 분석차원에 따라 (1) 개인 (2) 역할 (3) 정부 (4) 사회 (5) 체계 수준의 변수로 구분하고 국가의 형태 즉 크기·경제발전단계·정치체계의 개방-폐쇄정도에 따라 각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과 같이 지리·인구·자원상의 대국이면서 선진경제발전단계에 도달해있고 개방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역할 변수 > 사회차원 > 정부차원 > 체계차원 > 개인차원 변수 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중욱·김태현,

“외교정책이론,” 이상우·하영선 공편, 『현대 국제정치학』, (나남, 1992), pp.411-43. 참조. 이와 달리 이삼성은 미국의 대외 정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국가차원과 사회차원으로 양분하고 각 차원을 보다 구체적인 모델들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삼성, “미국외교정책결정론의 기본갈래와 실제,” 『현대 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1993), pp.63-86. 이 글에서는 로즈노의 주장처럼 여론은 그 자체로서 사회차원의 변수 중의 하나이며 정치체제가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중시하는 민주적 성격이 강할 경우 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역시 정책의 최종 결정은 정부차원에서 결정되며 여론은 이 과정에 투입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본다. 본 논문도 이러한 가정에 따른다.

6) 에릭 라슨(Eric Larson)과 샤프츠(Bogdan Savych)는 여론과 미국의 군사적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여론이 전쟁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 환경(public opinion circumstances)이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거나 특정상황에서는 그 전개방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입증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베트남 전쟁, 레바논, 소말리아 전쟁의 사례를 보면 여론이 성공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종결짓기 위한 정책적 허용범위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Eric V. Larson & Bogdan Savych, *American Public Support for US Military Operations from Mogadishu to Baghdad*, (RAND ARROYO Center, 2005)를 참조할 것.

7) Miroslav Nincic, “Sensible Public: New Perspectives on Popular Opinion and Foreign Polic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36 No.4, (December, 1992), pp.772-89.

8)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11/200411102-1.html>

9) 탈냉전 초기 이후 국제질서의 특징과 관련한 국제정치학계의 논쟁은 주로 극성(polarity) 문제에 집중된다. 즉 탈냉전 질서를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uni-polarity)로 볼 것인가 다극체제(multi-polarity)로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지 않아 현실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구축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다극적 국제질서를 전망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다양한 극성논쟁에 대한 소개와 이론적 검토는 현인택, “탈냉전의 현실주의, 비판론, 그리고 동아시아,” 우암평화연구원(편),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 (화평사, 2003), pp.118-140.

10) 본 표는 Krauthammer(2004), 이상현(2003), 이삼성(1993), 김성한(2005)을 참조하여 재구성.

11) 미국 외교 전략노선의 분류 및 현실주의와 신보수주의 간의 차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Charles Krauthammer, “In Defense of Democratic Realism,” *The National Interest*, (Fall 2004), pp15-20을 참조할 것.

12) 이상현, “미국의 안보정책,” 송대성(편저),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세종연구소, 2003).

13) 2기 부시행정부가 민주주의의 확산과 독재국가의 종식이라는 민주적 가치와 이상을 국가이익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부시행정부의 외교노선을 현실주의와 구별되는 신보수주의로 분류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14) 엄밀하게 따져보면 미국의 신보수주의 전략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한정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을 보면 잠재적인 패권경쟁국가인 중국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극단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주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목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15) 게디스(Gaddis)는 부시 2기의 선제공격 독트린을 적대국의 가시적 위협이 등장하였을 때 국제법상의 자위행위로 인정받는 선제공격(preemptive war)과 달리 실제로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

(preventive war)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신보수주의의 선제공격 독트린은 예방(prevention)을 위한 선제 공격(preemption)으로서 국제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John Lewis Gaddis, "Grand Strategy in the Second Term," *Foreign Affairs*, Vol.84 No.1, (Jan/Feb.,2005) pp.2-14.

16)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12>

17) 가로축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초강대국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US should or not make active efforts to ensure that no other country becomes a superpower?)"라는 문항(Q203)에 대한 응답이며 세로축 문항은 "미국은 중동 국가들이 보다 민주적인 국가들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US should or not put greater pressure on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to become more democratic?)"라는 문항(Q230)에 대한 응답이다.

18) 현실주의자의 신보수주의 비판에 대해서는 Robert F. Ellsworth & Dimitri K. Simes, "Realism's Shining Foreign Policy: The Post-Election Trajectory of U.S. Foreign Policy,"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2004/5), pp.5-10을 참조. 현실주의자들은 (1) 논쟁 유발적인 정권전복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산(spreading) 대신 국제적 합의가 가능한 고무(encouraging)와 촉진(promoting) 수준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 (2)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규범적 가치 대신 WMD 비확산과 반테러전이라는 현실적 목표에 집중할 것 (3) 민주주의를 강제적 힘을 통해 확산한다는 발상으로부터 전환하여 보다 사려 깊은(high minded) 정책을 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실정책의 차원에서는 중동 민주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두면서 WMD 확산의 주요 이슈인 북핵·이란 핵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현실주의 그룹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브렌트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역시 최근 부시 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질책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19) Henry R. Nau, "No Enemies on the Right: Conservative Foreign Policy Factions Beyond Iraq,"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2004/2005), pp.19-28을 참조할 것.

20) 김성한,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법: 평가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5. 5.17).

21) http://www.cfr.org/globalviews2004/sub/pdf/2004_US_Public_Topline_Report.pdf

22) Charles Krauthammer,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Winter 1990-91, pp.23-33.

23) Charles Krauthammer, "The Unipolar Moment Revisited,"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2002/03, pp.5-17.

24) Francis Fukuyama, "The Neoconservative Moment,"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2004, pp.57-68.

25) 신보수주의는 미국 외교사에 있어서 일시적인 이탈 현상으로서 신보수주의의 소멸을 통해 곧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할 것이라는 주장으로는 Stefan Halper & Jonathan Clarke, *America Alone: The Neoconservatives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4) 참조.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가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특히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대한 '맹신'이 또 다른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으로는 Craig R. Eisendrath and Melvin A. Goodman, *Bush League Diplomacy: How the Neoconservatives Are Putting the World at Risk* (Amherst: Prometheus Books, 2004) 참조.

- 26) Charles Krauthammer, "In Defense of Democratic Realism," *The National Interest*, Fall 2004, pp.15-25.
- 27) 이러한 점에서 그는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이나 빌 크리스톨(Bill Kristol)처럼 범세계적 민주주의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적 범세계주의'(democratic globalism) 학파와 달리 전략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곳에 민주주의를 심는 데 초점을 맞추는 '민주적 현실주의'(democratic realism) 학파로 자신을 명명함으로써 여타 신보수주의자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선을 그었다.
- 28) 신보수주의 외교이념에 관해서는 김성한, "신보수주의 외교이념의 구성과 주장," 남궁곤 (편), 『네오콘 프로젝트 :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사회평론, 2005), pp.181-206 참조.
- 29) 2004년 이라크 파병국가의 변화에 대해서는 김성한, "이라크파병과 국가이익," 『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제2호, <부록3> 이라크 군사작전 참가국 현황을 참조할 것.
- 30) 2004년 미국대선에 미친 안보효과에 대해서는 장훈, "2004 미국대선과 한반도 정책,"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제5호, (2004. 11)를 참조할 것.
- 31) 가상준, "대통령 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 선거 : 1952-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제 45집 1호, (2005), pp.154-164를 참조할 것.
- 32) 주요 이슈의 선정은 Krauthammer(2004)의 논의를 바탕으로 선별하였다.
- 33)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문항(Q4_5)은 1. 중요하지 않다. 2. 약간 중요하다. 3. 매우 중요하다고 재코딩 한 결과이며 중동 민주화(Q230)는 미국이 중동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지 묻는 문항으로서 1. 반대 2. 찬성으로 재코딩했다. 또한 미국이 국제문제에 대해 UN과 공동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Q90)에 대해서는 1. 찬성 2. 반대로 코딩했고 대테러전 방식(Q199)에 대해서는 1. 외교/경제적 수단 2. 양 수단 병행 3. 군사적 수단으로 재코딩했다. 즉 낮은 번호일 수록 진보적 입장을, 높은 번호일수록 보수적 입장을 대응시켜 일관되게 재코딩한 결과이다.
- 34) 재미있는 점은 세대별 인식 격차나 소득별 인식격차는 대외정책 선호에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별 대외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잉글하트(Inglehart)나 달튼(Dalton)같은 학자들은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 근대적 계급 균열이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 여성, 문화 등의 탈물질적 균열로 대체됨에 따라 계급정치가 선진 국가들의 정치를 설명하는 설명변수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한다.
- 35) 이슈축의 중첩과 교차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E. 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NewYork: Rinehart &Wilson, 1960)를 참조할 것.
- 36) 자세한 내용은 김성한(2004)의 부록 중 일지 참조.
- 37) 대표적인 예로 Francis Fukuyama, "The Neoconservative Moment,"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2004), pp.57-68. 이 글에서 후쿠야마는 미국 외교가 정통성(legitimacy)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부시 행정부 및 신보수주의 전략가들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그 근거로서 중동 지역 및 세계적으로 높아진 반미어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 38) 이 문항을 조사한 21개국의 전체 응답자 21,953명의 58%가 부시 재선이 세계평화에 '부정적' 이라고 응답한 반면 26%만이

긍정적이라고 대답했다. 이내영 · 정한울, “한국의 반미감정 과장됐다,” 『매일경제』, 2005년 1월 20일자.

- 39) 원 문항은 “George W. Bush has been reelected as President of US. Do you think this is positive or negative for peace and security in the world?”이며 이에 대해 “Negative”라고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 40) “How does the fact that George Bush has been reelected make you feel about whether South Korea should contribute troops to operations in Iraq?”에 대해 “여전히 지지한다(still in favor)”와 “(부시재선)으로 더 지지하게 되었다(more in favor)”의 응답을 합한 비율.
- 41) 이내영 · 정한울, “한국의 반미감정 과장됐다,” 『매일경제』, 2005년 1월 20일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반미감정은 국제비교 결과 상대적으로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서 한국은 호주,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국가이다. 한국의 반미감정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내영 · 정한울 · 정원철 (공저),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동아시아연구원, 2005)을 참조할 것.
- 42) Pew Research Center, *Views of a Changing World*, (June, 2003) p.19

| 참고 문헌 |

- 가상준, “대통령 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 선거: 1952-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 정치논총』, 45집 1호, (2005)
- 김성한, “미국 신보수주의 외교이념의 구성과 주장,” 남궁곤(편), 『네오콘 프로젝트 : 미국 신 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사회평론, 2005)
- 김성한, “미국의 민주주의 촉진법 : 평가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5. 5.17)
- 김성한,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EAI 국가안보패널보고서 제2호,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2004. 8)
- 안병진, “9·11테러와 미국의 외교노선 : 연속성과 단절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제43집 4호 (2003)
- 이내영 · 정한울, “한국의 반미여론 과장됐다,” 『매일경제신문』, 2005년 1월 20일자.
- 이내영 · 정한울 · 정원철,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동아시아연구원, 2005).
- 이삼성, “미국외교정책결정론의 기본갈래와 실제,”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1993)
- 이상현, “미국의 안보정책,” 송대성(편저),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세종연구소, 2003)
- 장훈, “2004 미국대선과 한반도 정책,” 『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제5호, (동아시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2004. 11)
- 정중욱 · 김태현, “외교정책이론,” 이상우 · 하영선 공편 『현대 국제정치학』, (나남, 1992)
- 현인택, “탈냉전의 현실주의, 비관론, 그리고 동아시아,” 우암평화연구원(편), 『정치적 현실주의의 역사와 이론』, (화평사, 2003)
- Craig R. Eisendrath & Melvin, A. Goodman, *Bush League Diplomacy: How the Neoconservatives Are Putting The World at Risk*, (Amherst: Prometheus Books, 2004)
- David Boaz, “No Mandate: No Kerry Election,” *Fox News*, 2004년 11월 3일자 인터뷰 기사.
- E. 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NewYork: Rinehart &Wilson, 1960)
- Eric V. Larson & Bogdan Savych, *American Public Support for US Military Operations from Mogadishu to Baghdad*, (RAND ARROYO Center, 2005)
- Francis Fukuyama, “The Neoconservative Moment,” *The National Inte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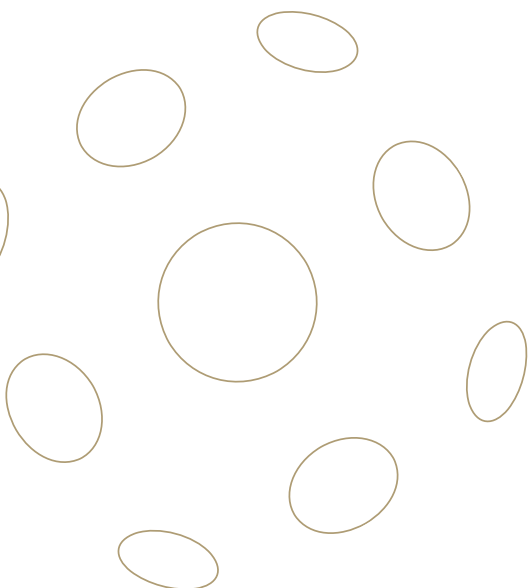
(summer, 2004).

- George W. Bush, *President Hold Press Conference*, 2004년 11월 4일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11/20041104-5.html>, (검색일: 2005. 6. 25).
- Henry R. Nau, "No Enemies on the Right: Conservative Foreign Policy Factions Beyond Iraq,"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2004/2005)
- John Lewis Gaddis, "Grand Strategy in the Second Term," *Foreign Affairs*, Vol.84 No.1, (Jan/Feb.,2005)
- Joseph S. Nye Jr. "Bush Won Less of a Mandate for Change Than You Might Think," *Daily Star*, 2004년 12월 6일
- Charles D. Krauthammer, "In Defense of Democratic Realism," *The National Interest*, (Fall 2004)
- Miroslav Nincic, "Sensible Public: New Perspectives on Popular Opinion and Foreign Polic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36 No.4, (December, 1992), pp.772-289.
- Pew Research Center, *Views of a Changing World*, (June, 2003)
- Robert F. Ellsworth & Dimitri K. Simes, "Realism's Shining Foreign Policy: The Post-Election Trajectory of U.S. Foreign Policy," *The National Interest*, (Winter, 2004/5)
- Stefan Halper and Jonathan Clarke, *America Alone: The Neoconservatives and the Global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4)
-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 2002), (<http://www.whitehouse/news/releases/2002/12/WMD-Strategy.pdf>)
- William Kristol, "Misunderestimated," *Weekly Standards*, 2004년 11월 15일자.

Data

- 동아시아연구원(EAI) · CCFR · CIDE · COMEXI, *Global Views 2004 Survey Data*, (2004, 7)
- 동아시아연구원(EAI) · GlobeScan 22개국 여론조사, *Global Issue Monitor Survey Data*, (2004, 12)

EARS Series 3





부록

부록 1. 조사방법 개요

부록 2. 조사 설문지와 빈도표

부록 1. 조사방법 개요

미국 CCFR 일반국민 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 Knowledge Networks, Inc.
- 조사대상 : 미국 유권자 모집단을 대표하는 KN Panel(1,831명)
- 조사지역 : 전국
- 유효표본 : 1,195명
- 조사방법 :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인터넷 조사
- 표본추출방법 : 패널 무작위 표본추출(Random-Sampling from Panel)
- 표본오차 : $\pm 3\%$ 포인트
- 조사기간 : 2004년 7월 6일~12일 (7일 간)

미국 CCFR 여론 주도층 여론조사

- 여론조사기관 : IPSO-Public Affairs
- 유효표본 : 450명(국회의원100명, 국제정치학 교수 75명, 국제담당 언론인 59명, 외교관료 41명, 종교지도자 50명, 기업인 38명, 노조지도자 25명, 대외정책 분야 이익단체대표 25명)
- 조사방법 :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여론조사
- 조사기간 : 2004년 7월 6일~12일 (7일 간)

GlobeScan · EAI Global Issues Monitor 23개국 국제여론조사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총괄 기획을 맡고 캐나다에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브스캔(GlobeScan)이 전세계 23개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한 Global Issues Monitor 국제여론조사는 부시 재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 현안에 대해 세계 각국의 여론을 조사하였다. BBC 월드서비스가 후원과 언론보도를 주관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EAI가 글로브스캔의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조사결과는 매일경제에 연재한 바 있다.

- 23개 참여국 :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Chile, China, France, Great Britain, Germany, India, Indonesia, Italy, Japan, Lebanon, Mexico, the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South Africa, Russia, South Africa, Korea, Turkey, the United States.
- 각국의 조사방법
http://www.pipa.org/OnlineReports/Views_US/BushReelect_Jan05/BushReelect_Jan05_rpt.pdf

부록 2. 조사 질문지와 빈도표

출처 : Global Views 2004 Top Line Report
(http://www.cfr.org/globalviews2004/sub/pdf/2004_US_Pubic_Toplevel_Report.pdf)

Question 3 (1-13)

Question 3 (1-13): Below is a list of possible threats to the vit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next 10 years. For each one, please select whether you see this as a critical threat, an important but not critical threat, or not an important threat at all.

3/1. Economic Competition from Europe

(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30 | 54 | 10 | 6 | 100 |
| 1994 | 27 | 57 | 10 | 6 | 100 |
| 1998 | 24 | 58 | 12 | 6 | 100 |
| 2002 | 13 | 63 | 22 | 2 | 100 |
| 2004 | 14 | 63 | 20 | 3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1 | ±0 | -2 | +1 | |

3/2. The Development of China as a world power

(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40 | 43 | 9 | 8 | 100 |
| 1994 | 57 | 32 | 5 | 6 | 100 |
| 1998 | 57 | 32 | 6 | 5 | 100 |
| 2002 | 56 | 34 | 8 | 2 | 100 |
| 2004 | 33 | 54 | 10 | 2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23 | +20 | +2 | ±0 | |

3/3. Islamic Fundamentalism**(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33 | 36 | 14 | 17 | 100 |
| 1998 | 38 | 33 | 16 | 13 | 100 |
| 2002 | 61 | 24 | 8 | 7 | 100 |
| 2004 | 38 | 43 | 16 | 3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23 | +19 | +8 | -4 | |

3/4. The Possibility of Unfriendly Countries Becoming Nuclear Powers**(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72 | 21 | 3 | 4 | 100 |
| 1998 | 75 | 18 | 3 | 4 | 100 |
| 2002 | 85 | 12 | 2 | 1 | 100 |
| 2004 | 64 | 31 | 3 | 2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21 | +19 | +1 | +1 | |

45

3/5. International Terrorism**(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69 | 25 | 3 | 3 | 100 |
| 1998 | 84 | 13 | 1 | 2 | 100 |
| 2002 | 91 | 7 | 2 | - | 100 |
| 2004 | 75 | 22 | 1 | 2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16 | +15 | -1 | +2 | |

3/6. Large numbers of immigrants and refugees coming into the U.S.

(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72 | 23 | 3 | 2 | 100 |
| 1998 | 55 | 35 | 7 | 3 | 100 |
| 2002 | 60 | 31 | 8 | 1 | 100 |
| 2004 | 52 | 37 | 9 | 1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8 | +6 | +1 | ±0 | |

3/7. Economic Competition from Low-wage Countries

(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na | na | na | na | na |
| 1998 | 40 | 44 | 12 | 4 | 100 |
| 2002 | 31 | 44 | 24 | 1 | 100 |
| 2004 | 35 | 48 | 14 | 2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4 | +4 | -10 | +1 | |

3/8. Global Warming

(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na | na | na | na | na |
| 1998 | 43 | 38 | 12 | 7 | 100 |
| 2002 | 46 | 33 | 17 | 4 | 100 |
| 2004 | 37 | 47 | 14 | 2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9 | +14 | -3 | -2 | |

3/9.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na | na | na | na | na |
| 1998 | 76 | 19 | 2 | 3 | 100 |
| 2002 | 86 | 12 | 2 | - | 100 |
| 2004 | 66 | 29 | 3 | 2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20 | +17 | +1 | +2 | |

3/10. AIDS, the Ebola Virus, and other Potential Epidemics**(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na | na | na | na | na |
| 1998 | 72 | 24 | 2 | 2 | 100 |
| 2002 | 68 | 29 | 3 | - | 100 |
| 2004 | 58 | 37 | 4 | 1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10 | +8 | +1 | +1 | |

47

3/11. Tensions between India and Pakistan**(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na | na | na | na | na |
| 1998 | na | na | na | na | na |
| 2002 | 54 | 36 | 7 | 3 | 100 |
| 2004 | 18 | 62 | 18 | 2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36 | +26 | +11 | -1 | |

3/12. World population growth

(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na | na | na | na | na |
| 1998 | na | na | na | na | na |
| 2002 | 44 | 42 | 12 | 2 | 100 |
| 2004 | 30 | 55 | 13 | 2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14 | +13 | +1 | ±0 | |

3/13. Military conflict between Israel and its Arab neighbors

(N=1,195)

| | Critical (%) | Important but not critical (%) | Not importan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1990 | na | na | na | na | na |
| 1994 | na | na | na | na | na |
| 1998 | na | na | na | na | na |
| 2002 | 67 | 27 | 5 | 1 | 100 |
| 2004 | 39 | 48 | 12 | 2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28 | +21 | +7 | +1 | |

Question 4

Question 4 (1-14): Below is a list of possible foreign policy goals that the United States might have. For each one please select whether you think that it should be a very important foreign policy goal of the United States, a somewhat important foreign policy goal, or not an important goal at all?

Raking of U.S. Foreign Policy Goals (by Very Important)

(N=1,195)

| Goal | Very important (%) | Somewhat important (%) | Not important (%) | Not sure/Decline (%) | Total (%) |
|---|--------------------|------------------------|-------------------|----------------------|-----------|
| Protecting the jobs of American workers | 78 | 19 | 2 | 2 | 100 |
| Preventing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 73 | 23 | 2 | 2 | 100 |
| Combating international terrorism | 71 | 25 | 2 | 2 | 100 |
| Securing adequate supplies of energy | 69 | 27 | 2 | 2 | 100 |
| Stopping the flow of illegal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 63 | 27 | 8 | 2 | 100 |
| Controlling and reducing illegal immigration | 59 | 33 | 6 | 2 | 100 |
| Maintaining superior military power worldwide | 50 | 41 | 7 | 2 | 100 |
| Improving the global environment | 47 | 44 | 8 | 1 | 100 |
| Combating world hunger | 43 | 47 | 9 | 2 | 100 |
|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 38 | 43 | 17 | 2 | 100 |
| Protecting the interests of American business abroad | 32 | 53 | 13 | 2 | 100 |
| Protecting weaker nations against foreign aggression | 18 | 67 | 13 | 2 | 100 |
| Helping to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of less developed nations | 18 | 59 | 21 | 2 | 100 |
| Helping to bring a democratic form of government to other nations | 14 | 58 | 27 | 2 | 100 |

Question 35

Question 35: Do you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responsibility to play the role of 'world policeman,' that is, to fight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aggression wherever they occur?

35. U.S. responsibility to be World Policeman

(N=1,195)

| | Yes (%) | No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2002 | 34 | 62 | 4 | 100 |
| 2004 | 20 | 76 | 4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14 | +14 | ±0 | |

Question 40

Question 40: Please select if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 U.S. is playing the role of world policeman more than it should be.

40. U.S. World Policeman more than it should be

(N=1,195)

| | Agree (%) | Disagree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2002 | 65 | 34 | 1 | 100 |
| 2004 | 80 | 18 | 3 | 100 |
| Change in % points 2002-2004 | +15 | -16 | +2 | |

Question 53b (exclusive from 53a)

Question 53b: Suppose there is a government that is providing substantial support to a terrorist group that the United States thinks might pose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Please select when you think the US would have the right to overthrow this government even if it does not have UN approval

53b. U.S. overthrow of governments that support terrorism without UN approval**(N=583)**

| | When the US thinks that the terrorist group may pose a threa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whether or not it poses such a threat now (%) | Only when the US has strong evidence that the terrorist group poses an imminent threat (%) | The US would always first need to get UN approval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2004 | 11 | 58 | 26 | 6 | 100 |

Question 90

Question 90: Please select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When dealing with international problems, the U.S. should be more willing to make decisions within the United Nations even if this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ometimes have to go along with a policy that is not its first choice.

51

90. US-UN joint decision making**(N=1,195)**

| | Agree (%) | Disagree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2004 | 66 | 29 | 4 | 100 |

Question 199

Question 199: In the effort to fight terrorism, do you think that in the future, compared with what it has been doing, the US government:

199. Efforts to fight terrorism

(N=1,195)

| | Should put more emphasis on military methods (%) | Should put more emphasis on diplomatic and economic methods (%) | Has the balance about right (%) | Not sure/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 2004 | 11 | 58 | 26 | 6 | 100 |

Question 203

Question 203: Do you think the US should or should not make active efforts to ensure that no other country becomes a superpower?

203. US efforts to remain superpower

(N=1,195)

| | Should make active efforts (%) | Should not make active efforts (%) | Not sure/Decline (%) | Total (%) |
|-------------|--------------------------------|------------------------------------|----------------------|-----------|
| <u>Year</u> | | | | |
| 2004 | 52 | 41 | 6 | 100 |

Question 230

Question 230: Do you think the US should or should not put greater pressure on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like Saudi Arabia and Egypt, to become more democratic?

230. Democratization in the Middle East

| | <u>(N=1,195)</u> | | | |
|----------|------------------|----------------|-----------------------|-----------|
| | Should (%) | Should not (%) | Not sure/ Decline (%) | Total (%) |
| 11/2003* | 41 | 53 | 6 | 100 |
| | 35 | 57 | 8 | 100 |

*Data is from a PIPA/Knowledge Networks survey asked in November 2003

EAI · CCFR · CIDE · COMEXI 3개국 공동

대외인식 여론조사 프로젝트

■ EAI 국제회의 준비 및 영문단행본 발간 TF Team

| | |
|--------------------|--------------------------------------|
| 이내영 |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 교수 (팀장) |
| 김병국 | EAI 원장, 고려대 교수 |
| 김성한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 김태현 | EAI 외교안보센터소장, 중앙대국제대학원 교수 |
|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
| Marshall M. Bouton |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 Steven Kull |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 Benjamin I. Page | Northwestern University |
| Robert Y. Shapiro | Columbia University |

■ EAI EARS Report 발간 Team

| | |
|-----|----------------------|
| 이내영 | EAI 여론분석센터소장, 고려대 교수 |
| 김병국 | EAI 원장, 고려대 교수 |
| 정원철 | EAI 선임연구원 |
| 정한울 | EAI 선임연구원 |
| 강우창 | EAI 연구원 |

■ 연구조교

| | |
|-----|-----------------|
| 김영화 | 고려대 석사과정 |
| 김주은 | EAI인턴 |
| 김철민 | 고려대 석사 |
| 노유연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
| 박소영 | 고려대 석사 |
| 이경하 | 서울대 국제대학원 |
| 이고은 | 서울대 국제대학원 |
| 조윤경 | 서울대 국제대학원 |
| 허윤선 | 서울대 국제대학원 |



100-849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Phone: +82-2-2277-1683
Fax: +82-2-2277-1684
Web: www.eai.or.kr

CCFR Team

The Chicago Council Foreign Relations
116 South Michigan Avenues
10th Floor
Chicago, IL 60603
Phone: (312) 726-3860
Web: www.ccfcr.org

Marshall M. Bouton, Study chair
Catherine Hug
Steven Kull
Benjamin I. Page
Robert Y. Shapiro
Jennie Taylor
Christopher B. Whitney



Centro de Investigacion y Docencia Economicas, A.C.,
Division de Estudios Internacionales
Carretera Mexico-Touca No.3655
Col. Lomas de Santa Fe, C.P. 01210
Mexico D.E.
Phone: (5525) 57279862, 57279827
Fax: (5255) 57279872
Web: www.cide.edu

CIDE Team

Susan Minushkin
Ana Golnzalez
Laura E. Cedillo

Guadalupe Gonzalez
Uleses Beltran
Antonio Ortiz Me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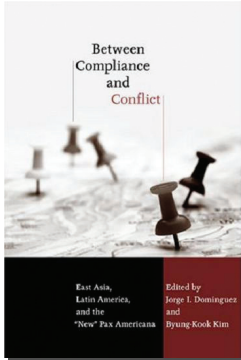
Consejo Mexicano de Asuntos Ineracionales, A.C.
CamposEliseos 345, piso 6
Col. Polanco, C.P. 11560
Mexico D.F.
Phone: (5225) 5279 6087
Fax: (5255) 52796091
Web: www.consejomaxicano.org

COMEXI Team

Andres Rozental
Miguel Basanez

Aurora Adame
Susana Iruegas

●● EAI 신간 소개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edited by
Jorge I. Dominguez and Byung-Kook Kim

Published in 2005 b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 EAI 보고서 시리즈

EARS 시리즈

- ① 노무현 정부 1년 국정평가 : 국민여론과 전문가 평가 (2004. 6. 21)
- ② 전환기의 한미동맹과 국민여론 (2005. 5. 9)
- ③ 여론과 미국외교 : 부시2기 외교정책의 딜레마와 선택 (2005. 12. 12)

NSP 시리즈

- ①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4. 6. 17)
- ② 이라크 파병과 국가이익 (김성한 2004. 8. 4)
- ③ 주한미군 재배치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전략개념 (한용섭 2004. 9. 24)
- ④ [개정본] 북핵문제와 6자회담 (하영선 · 전재성 2004. 10. 22)
- ⑤ 2004 미국대선과 한반도 (장 훈 2004. 11. 1)
- ⑥ 북한체제위기와 한국의 대북정책 (신성호 2005. 1. 26)
- ⑦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박철희 2005. 3. 22)
- ⑧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이태환 2005. 5. 25)
- ⑨ 정보화시대의 군사제국 : 미 군사변환의 세계전략과 동맹 네트워크 (이상현 2005. 10. 4)
- ⑩ 미국의 동아태 전략 : 변화와 지속성 (김성한 2005. 11. 17)

EAI 후원안내

EAI에서는 EAI의 연구활동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기업·단체 등 누구나 후원이 가능하며 본 연구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EAI후원회에 가입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첨부한 CMS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매월 25일에 자동으로 후원금이 납부됩니다. 또한, 제일은행 436-20-155168 (예금주 :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으로 후원금을 직접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보내주실 경우 영수증 발행을 위해 성함과 연락처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AI 후원금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밝은 미래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소망을 담아 자녀의 이름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 후원회원 혜택 |

| 회원구분 | 월후원금 | 혜 택 |
|------|---------|---|
| 세종회원 | 50만원 이상 | 세미나와 포럼 참석권, 영문저널 JEAS, 연구원 발간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
| 총무회원 | 30만원 이상 | 세미나와 포럼 참석권, 영문저널 JEAS, 연구원 발간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
| 울곡회원 | 10만원 이상 | 세미나와 포럼 참석권, 영문저널 JEAS, 연구원 발간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
| 퇴계회원 | 5만원 이상 | 연구원 발간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
| 삼봉회원 | 3만원 이상 | 연구보고서,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
| 다산회원 | 1만원이상 | 연말보고서와 뉴스레터, 홈페이지 모든 자료 이용권한 |

※ 법인 후원 회원님과 일시불로 후원해 주신 회원님께도 회원구분 기준에 의해 동일한 혜택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E-mail - hybaek@eai.or.kr FAX - 02-2277-1684

| 후원금 자동이체(CMS) 신청서 양식 |

| | | | |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
| | 이메일 | | |
| 후원 희망 금액 | 원 | | |
| 예금주 성명 | | | |
| 은행명 | | | |
| 계좌번호 | | | |
| 추천인 | | | |



EAI
동 아 시 아 연 구 원

동아시아연구원

Tel. +82-2-2277-1683

Fax. +82-2-2277-1684

<http://www.eai.or.kr>